

제415회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록

(임시회)

제 2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4년6월24일(월)

장 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업무보고 및 현안질의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 국가유산청 소관
- 업무보고 요구의 건(추가)
- 서류제출 요구의 건(추가)
- 증인 출석요구의 건(추가)

상정된 안건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임오경 위원 외 1인 서면동의)	10
2. 업무보고 요구의 건	10
3. 서류제출 요구의 건	11
4. 증인 출석요구의 건	11

(10시14분 개의)

○위원장 전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5회 국회(임시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노트북 단말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부처에 대하여 업무보고 및 현안질의를 실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제22대 문체위 구성에 따라서 소관 부처의 업무를 상세히 파악하기 위해서 업무보고를 받고 관련 현안 등에 대한 질의를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는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셨고 업무보고 대상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의 장관 및 청장 등 출석요구를 받은 국무위원 및 정부 위원도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국회법 제121조에 따라서 출석 요구를 받은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은 국회에 출석하여 답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업무보고 및 현안질의에 불출석한 것입니다.

정부 측 관계자들이 출석하지 않은 관계로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 및 현안질의는 상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의 불출석 등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유정 위원님.

○**강유정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강유정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상 문체부장관이 오후 7시에 해외 출장을 말해서 시간도 10시 상임위로 당긴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참했고요. 국가유산청장 역시도 문체부가 불출석하면 유산청도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해괴한 논리, 비겁한 변명을 늘어놓으면서 여기 상임위에 나타나지 않았는데요.

지금 그뿐만이 아닙니다. 업무보고를 보좌진에게도 하지 않고 국회의원에게도 하지 않고 또 야당 보좌진에 대해서 이미 업무보고를 여러 번 요청했지만 계속해서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자료제출조차 성실히 하고 있지 않은데요. 본 위원 같은 경우는 한일중 미래 꿈나무 2020 타임캡슐 행사를 놓고 관계자료를 요청했는데 외교부에서 생산한 자료라서 제출이 불가하다, 너무 궁색한 답변을 보내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차질 없도록 위원회 명의로 공통 자료 요구를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업무보고와 현안질의에 안 오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굴고 있습니다. 출석 의무는 있지만 사실상 여기에 대해서 처벌규정이 없어서 그러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불출석 시 고발이나 강제구인, 동행명령과 같은 국회법에서 보장하는 일종의 처벌 조치 내지는 꼭 출석할 수 있는 의무사항 조치를 강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전재수** 임오경 간사님.

○**임오경 위원** 경기도 광명갑 임오경 위원입니다.

오늘도 정부 여당이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보이콧하고 이 자리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야당 국회의원으로서 정말 참담한 심정까지 듭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여당 위원들은 헌법과 국회법에 따른 공식적인 상임위 일정은 거부한 채 소위 가짜 상임위인 당 문체특위를 만들어 업무보고를 두 차례나 받고 지난 수요일에는 2차관과 함께,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지요? 2차관과 함께 현장시찰까지 나갔습니다.

또한 문체부 공무원들은 법적 권한도 없는 여당 특위 회의에는 열심히 나가서 업무보고하고 적극적으로 자료 제공하면서 막상 국회법에 따른 상임위의 출석요구에는 불출석 사유서도 내지 않고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헌법 제62조 2항에는 ‘국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답변해야 하며’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택사항이 아닌 정부 위원들의 의무인 것입니다. 헌법에서 명시한 의무마저 저버리고 나타나지도 않는 장차관 및 문체부 공무원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궁금하지도 않습니다.

지금 현재 이 미디어를 통해서 TV를 시청하고 있을 우리 문체부 공무원님들, 잘 듣기를 바랍니다.

문체부의 불성실한 행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상임위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통상적으로 상임위에 앞서 진행되는 보좌진 대상 업무설명회조차 문제부는 거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문제부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국회의원에게 업무보고, 조금 늦어도 됩니다. 하지만 문제부 직원들은 국회에 있는 보좌진들과는 업무보고가 끝났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 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업무보고를 하지 못한다는 거부를 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또한 참담함을 넘어 개탄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의원실의 자료 요청에 대해서는 이런 불성실한 태도로 답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어요.

의원실의 자료 요구에 대해 이런 식으로 불성실한 답변을 하고 자료 요구에 응했다고 하는 문제부의 태도를 보면 문제부 공무원들은 자신들의 본분을 완전히 망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기다리기만 할 수는 없습니다. 국민께서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우리 위원회가 국회법 제129조에 따라 현안질의 및 업무보고를 안건으로 추가 상정하고 문제부장관과 1·2차관, 국가유산청 청장과 차장, 소관 기관의 기관장들을 증인으로 신청할 것을 위원장님에게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또한 각 의원실에서 요청한 자료 요구를 위원회 명의로 의결하여 자료제출을 받을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정부, 여당 의원님들께도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용산 눈치 이제 그만들 보시지요. 여러분들은 용산에서 선택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국민에게 선택받았습니다. 국민의 민의를 저버려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세비를 받고 활동하는 사람들입니다. 국민에게 부끄러운 줄 알고, 원구성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그것은 뒤로 하고 상임위에서 만큼은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불편, 불익을 끼쳐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님들에게도 용산 눈치 그만 보시고 이제 국회 보이콧을 중단해주시기를 바라고, 생떼와 억지 부리는 것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습니다. 자리로 돌아오셔서 민생을 위해 현장, 민의를 위해서 싸우더라도 이 자리에서 함께 싸울 수 있도록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재수 민형배 위원님.

○민형배 위원 더불어민주당 민형배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위원회에서 국무위원과 정부위원의 출석요구를 의결했는데 오늘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위원장님, 특히 문제부장관과 국가유산청장에게 그 책임을 꼭 좀 물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보니까 임오경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공직자들이 너무 검찰독재 정권, 용산 눈치 보기에 열중인데 언론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공직자들은 이렇게 국회의 출석요구를 무시하고, 심지어는 지난주에 보니까 청문회에서 증인 선서까지 거부하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언론도 비위를 맞추려고 그러는 건지 야당 대표를 향한 가짜뉴스를 막 쏟아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안부수 회장 1심 판결문 관련 보도인데요.

지난 14일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법원 판결의 문제점을 언급하면서 언론의 관심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이른바 대북송금 사건이라는 동일 사건에 대해서 수원지법의 형사11부와 15부가 서로 다른 판결을 내립니다. 안부수 회장 판결문에는 ‘대북송금이 주가조작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화영 전 부지사 판결문에는 ‘이재명 방북 대납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러한 서로 상충되는 결론에 대해서 이 대표가 언론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지적을 했는데 SBS와 한국일보가 이를 기사로 보도하고 칼럼으로 쓰면서 이 대표가 틀렸다고 맹비난을 합니다. 심지어는 자신들이 판결문을 제대로 읽지도 않은 상태로 ‘안부수 회장 판결문에는 주가 관련 내용은 안 나온다’ 이렇게 공격을 해 냅니다. SBS가 이런 보도를 하자 한국일보는 그걸 근거로 해서 기사를 씁니다. 칼럼을 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SBS가 보도를 잘못했습니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실수를 인정하고 사실을 바로잡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일보는 SBS 보도를 그대로 인용해서 팩트체크 없이 이 대표를 비난하면서 생사람을 잡은 건데요, 아직까지도 아무런 조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마치 오보 천국이 된 듯한데 왜 그런가? 왜곡·조작 같은 오보를 내도 사회적 책임을 묻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민들은 지금까지 권력의 부정부패에 눈감으면서 오보를 일삼아 온 언론들이 별다른 책임 없이 혹은 처벌 없이 성장하는 과정을 봤습니다. 우리 사회가 오보에 둔감해진 이유지요. 더는 둔감해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위원장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음 회의 때 꼭 언론중재위, 언론재단 관련 기관도 출석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장관도 꼭 와야 되는데요, 지난번에……

시간이……

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 관련해서 장관 답변을 꼭 받아야겠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하실 말씀 다 하셔도 됩니다.

○민형배 위원 좀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전재수 예.

○민형배 위원 지난주 화요일 상임위 전체회의 때 제가 김정숙 여사 기내식에 6000만 원 썼다는 국힘의 주장이 완전히 잘못됐다, 결국 네 끼에 수십만 원에 불과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인도로부터 김정숙 여사가 초청을 받지 않았다는 허위사실 주장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그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김정숙 여사는 인도의 공식 초청으로 방문을 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그 사본입니다. 이 사본에 보면 죽 설명을 해 나가다 뒤에 가면 공식적으로 김정숙 여사의 성함을 언급하면서 정중하게 초청합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건 어떻게 해서 여당 의원이 이런 국가기관의 문서를 확인도 하지 않고 초청받지 않았는데 갔다 하면서 심지어 특검법까지 발의를 하는 정말 웃지 못 할, 제가 국회에 온 이래로 처음 보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공문이, 초청장이 공식적으로 와 있는데도 이걸 완전히 무시하고 초청을 받은 적이 없다 이런 허위사실을 유

포하는지 정말 기가 막힐 때입니다.

제가 이 타임라인을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필요하면 보도자료를 내든지 그렇게 할 건데요. 하여튼 네 차례의 요청이 있었는데 처음 두 번은 문재인 대통령을 초대한 거고 세 번째는 문체부장관 앞으로 초청장이 온 거고, 이게 네 번째 초청장인데요 이 것은 김정숙 여사 앞으로 온 겁니다.

이런 초청장이 명백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허위 주장으로 통해서 이런 게 없었다고 얘기하는,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인도 정부 입장에서는, 허황후 기념공원 착공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인도하고 대한민국의 역사적인 관계를 보여 주는 것이어서 인도 입장에서는 반드시 저희의 중요한 인사를 초청하고 싶었고 그래서 결국 저희 대통령 부인이 참석을 하도록 해 주도록 그렇게 요청을 해 온 겁니다.

이 밖에도 예산집행 과정이 온당치 않거나 일정표에 없던 타지마할을 방문했다는 이런 주장들도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다 엉터리입니다.

위원장님께서 꼭 장관이 출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관련 자료도 제출해 주시도록 요청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료 요청은 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 관련해서 예산 사용 경위 및 사용 근거, 우리 정부에 먼저 요청했는지 여부, 두 번째는 장관의 해외출장 관련해서 일정 계획안과 실제 수행 일정, 기업인도 동행한 출장 내역과 소요 비용 그리고 세 번째로는 관계기관, 그러니까 외교부하고 이 논의를 했을 텐데 관계기관과 주고받은 문서 사본 일체 이런 것들을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과 관련해서 허위 주장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사실을 반드시 확인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위원장님께서 문체부에 반드시 자료를 제출해 주도록 강력하게 촉구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위원장님, 아까 의사진행발언에서 한 대목 추가적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증인 출석 관련해서 지금 서면으로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 부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재수 김재원 위원님.

○김재원 위원 조국혁신당 김재원 위원님.

지난 6월 18일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 건을 의결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과 정부위원들은 오늘도 출석하지를 않았습니다. 처벌조항이 없다고 헌법과 국회법을 무시하면서 국회의 정당한 요구에 불응하는 행정부는 도대체 어느 나라 행정부입니까?

지난 상임위에서 일본 정부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철회 및 일본 근대산업시설 유네스코 권고 이행 촉구 결의안을 의결할 때 국가유산청과 문체부가 출석하지 않았던 것도 기가 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헌법과 법률, 국회를 무시하는 행태를 계속하고 있는 정부 여당의 행태에 분노마저 느낄 지경입니다.

더구나 장관은 오늘 저녁 스케줄임에도 불구하고 출석을 하지 않고 오늘부터 30일까지 캐나다와 미국으로 해외출장을 떠난다고 합니다. 22대 첫 국회가 시작되었고 415회 국회(임시회)가 이미 열린 상태입니다. 교섭단체대표연설, 대정부질문, 상임위까지 국회 일정이 예상되는데 이 상황에 장관이 해외로 출장을 나가는 것이 옳은 자세입니까?

총선 민의에 따라 구성된 22대 국회의 협조를 얻어야 행정부도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행정부 입장에서 민생을 챙기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 있습니까? 장관이 22대 국회 개원 시점에 해외출장을 잡은 것은 거부권을 적극 활용하라고 말하는 대통령의 눈치를 보며 총선 민의를 무시하고 입법부를 경시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위원장님, 이제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국무위원 등이 출석하지 않는다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재수 양문석 위원님.

○양문석 위원 안산시갑 양문석입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행태를 세 가지만 지적하고 자료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대비 2023년 정부 광고비 매출 증감 내역을 보면요 KBS는 93억이 증가합니다. 대신에 MBC는 5억 6000만 원이 감소합니다. ‘바이든, 날리면’ 보도로 MBC가 계속 탄압 받는데 대통령실로부터만 탄압받는 게 아니고 정부 광고비에서도 실질적으로 심각한 손해를 끼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TV조선은 80억이 증액됩니다. 지상파 SBS가 75억 증액된 것보다 TV조선은 80억이 증액이 되고요, 전년 대비 거의 2배가 증액이 됩니다. 대한민국이 조선일보의 나라입니까? 조선일보의 공화국입니까? 조선일보의 이 특혜를 지금 언론재단이 허용하고 있는 겁니까?

대통령실의 명령입니까, 문체부의 명령입니까, 안 그러면 언론재단 자체적 판단입니까? 이 판단에 대한 근거, 왜 조선일보는 2배가량, 심지어 지상파 SBS보다도 더 많은 80억 증액이 일어났는지. 두 번째로 지상파 3사 중에 KBS가 93억, SBS가 75억 증액될 때 왜 MBC는 5억 6000만 원이 감액됐는지 여기에 대한 근거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언론인 해외연수 사업 문제입니다.

대통령과 김치찌개·계란말이 만찬이 5월 24일, 그리고 한국언론재단이 6월 17일 날 언론인 해외연수 사업에 있어서 24년 62명에서 25년 161명으로 무려 99명을 증가시켰습니다. 갑자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래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지난해 23년에 24년 사업계획서를 준비했고 그리고 대체적으로 24년 초에 그 사업계획서가 확정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5월 24일 대통령과 언론사의 김치찌개·계란말이 만찬 이후에 한 달이 채 되기도 전에 99명의 해외연수 사업이 확대되는 그 이유와 근거를 반드시 제출하기 바랍니다.

세 번째, 로이터 통신의 부속 연구소지요.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의 디지털 뉴스 보고서 번역과 관련된 논란에 대해서 다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해에는 일부 내용을 삭제해서 말썽을 일으켰는데 올해는 한국판을 아예 발간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예 번역 자료를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삭제된 내용이, ‘신뢰

받는 언론 1위 MBC, 신뢰받지 않는 언론 1위 조선일보' 이 부분이 삭제되었습니다.

도대체 조선일보가 한국언론재단까지 장악하고 문화부까지 장악하고 있나요? 그리고 도대체 조선일보가 뭐기에 조선일보에 불리한 것들은 다 빼지고 조선일보에게 광고 몰아주고 이런 행태들이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자행되고 있는, 국민들의 눈을 속이고 오로지 조선일보 공화국을 만들기 위한 이런 행태들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발간하지 않았는지 또 일부 내용을 삭제했는지 그 관련 근거와 자료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재수** 이기현 위원님.

○**이기현 위원** 민형배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에 붙여서 몇 가지 더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이 정치적 목적으로 현안이 되었을 때 외교부 대변인은 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을 우리 정부가 먼저 요청해서 이뤄진 것처럼 주장을 했고요. 또 외교부장관과 문체부장관 초청장은 확인되었으나 김정숙 여사에 대한 초청장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불과 며칠이 되지 않아 외교부 대변인이 건강상의 문제로 좀 놓친 것 같다고 하면서 이 초청장의 존재 자체를 인정했습니다.

민형배 위원님께서 이미 공개는 하셨습니다만, 일부 언론에 이미 다 공개되어 있기는 합니다. 다만 저희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 초청장을 공식적으로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아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장님께 저희 문체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를 공식적으로 좀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요.

저희 방에서 이미 외교부에 이 자료에 대해서 공식적인 요청을 했습니다만 공식적으로 지금 거부를 당했습니다. 거부 사유는 외교 관계를 고려해서 공개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국회 중언·감정법상 자료제출 거부 사유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거부 사유는 오로지 군사·외교·대북 관계 등에 대한 국가기밀로 한정되어 있을 뿐입니다.

국회 중언·감정법에 따르면 이 경우 위원회는 고발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3년 이하 징역까지 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자료제출을 요청하고 외교부가 만약에 불용 시에 조태열 장관 그리고 김홍균 1차관 그리고 기조실장에 대해서 중언·감정법에 따라서 고발 조치해 주실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전재수** 다음은 조계원 위원님.

○**조계원 위원** 여수시을의 조계원 위원입니다.

먼저 5월 30일 22대 국회가 개원한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원 구성에 응하지 않고 있는 집권여당인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권의 무책임과 몰염치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문화체육관광은 단순히 국민의 건강과 여가뿐만 아니라 민생경제의 활력소이기도 합니다. 나아가 수많은 소상공인과 문화예술인들의 생계와 미래가 걸린 부분입니다.

21세기는 소프트 파워의 시대입니다. 소프트 파워의 핵심은 각 국가의 문화 역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캐케묵은 과거 독재자들의 권위주의 통치를 답습하면서 그동안 쌓아 온 대한민국의 문화 역량을 끝없이 추락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눈 떠보니 후진국이라는 말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이 정부의 행태를 보면서 이 정부는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는 국민 포기 정권이라고 다시 한번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정부는 오로지 대한민국을 자기들의 사유재산쯤으로 여기는 조선일보 등의 족벌 언론과 재벌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노자의 도덕경 17장에는 지도자론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지도자는 백성들이 그가 있다는 것만 알고 그다음은 친근하고 자랑스럽게 여기며 그 다음은 두려워하며 그다음은 업신여기고 경멸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지도자일까요? 윤석열 대통령은 백성들이 업신여기고 경멸하는 지도자 반열에서 있다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반성하기 바랍니다.

민주정치의 기본 원리는 협치입니다. 국민의힘도 협치를 주장합니다. 그러나 대선 이후 줄곧 정치보복과 무도한 거부권 행사로 협치를 무너뜨린 장본인들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 기간 중에 김대중 대통령님을 가장 존경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행동은 정반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을 죽음의 문턱까지 몰고 갔던 전두환 대통령을 용서하며 협치를 통해 IMF 국난을 극복해낸 김대중 대통령을 가장 존경한다고 했으면 그 말씀을 따라 협치를 기억하고 그 길을 따라가기 바랍니다.

또한 적반하장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국회 입법 절차를 부정하고 봉지를 부리고 부당하게 버틴다고 해서 우리 민주당이 거기에 끌려다니는 것은 결코 협치에 응하는 것도 아니고 민주주의에 응하는 것도 아닙니다.

존경하는 전재수 위원장님께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이 정부의 국회에 대한 태도와 인식이 확인된 만큼 주요 업무사항과 현안보고를 위한 정부 측 증인 채택을 국회법 129조에 의거하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인 채택 후에 불출석할 경우에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2조, 5조, 12조에 의거하여 위원회 명의의 고발 조치를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이 정한 책임을 끝까지 철저하게 물어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재수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박수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수현 위원 박수현입니다.

저는 지난 18일 문체위 첫 회의에서 국민이 의지할 수 있는 국회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하신 지하철 출근길에서 만난 시민의 말씀을 전한 바 있습니다.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국회, 참 이 말씀을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이렇게 힘든 국민들이 그래도 정치를, 정치권을, 국회를 조금이라도 믿고 의지할 마음이 생기고 국민들에게 그런 의지처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러한 국민이 의지할 수 있는 국회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모든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고속버스와 지하철에서 만나게 될 시민들께서 대한민국 국회의 현 상황을 뭐라고 하실까 생각하면 저는 출근길이 너무나 무거운 마음이고

착잡합니다.

지난 21일에는 영화계 인사가 본 의원실을 찾아서 문화산업의 지원금 감소와 협장의 어려움에 대해 호소하면서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절박한 요구를 할 때는 정말 눈시울이 함께 젖기도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국회라는 공론의 장에서 이러한 요구에 응답하여 현안들이 논의되고 정책화되어 가는 과정을 보여 드리고 알려 드리는 것이 국회의원과 정부의 당연한 의무라고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출근하면서 국회 정문 앞에 걸려 있는 한 현수막을 보았습니다. ‘민주당의 입법 독주로 무너지는 삼권분립이다’ 이렇게 써 있는 국민의힘 명의의 현수막이었는데 참으로 해괴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누가 삼권분립을 무너뜨리고 있습니까? 거부권을 무기로 야당을 상대하려는 대통령이 삼권분립을 무너뜨리는 장본인 아닙니까? 이런 말에 한마디 항의도 하지 못하는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 스스로가 삼권분립을 무너뜨리고 있는 부끄러운 국회의 구성원 아닙니까?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와 책임을 스스로 내팽개친 국민의힘이 삼권분립을 무너뜨린 장본인입니다.

여당은 국회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외부에서 특위를 만들어서 당정회의 명목으로 정부 부처를 불러와 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앞에서 존경하는 임오경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야당의 보좌진 업무보고조차 하지 못하게 부처를 압박한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는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지난주 법사위원회의 입법청문회를 보면 채 상병의 죽음을 왜곡하고 은폐하고 책임자 처벌을 방해하는 대통령의 외압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그것이 외압이라기보다는 서류 회수에 관여하는 것이라고 얼떨결에 진실을 폭로하고 말았습니다. 유재은 법무관리관은 대통령실로부터 경북경찰청으로부터 전화가 올 것이라는 전화가 있었다라고 또 얼떨결에 사건의 진실을 폭로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국회는 국민의 알권리와 진실이 밝혀지는 그야말로 민의의 전당인 것입니다. 이런 국회의 기능을 스스로 거부하는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이라고 스스로를 부를 수 있습니까?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스스로 깎아 먹는 행동을 멈추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국회의 회의 자리에 나와서 시급한 현안들에 대한 협의에 하루빨리 참여해 주기를 다시 한번 촉구하고, 저도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과 마찬가지로 존경하는 전재수 위원장께서 이에 대한 중인 신청과 거부 시 강력한 법적 처벌을 함께 진행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려 한 가지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8일 우리 국회 문체위에서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철회 결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등재 심의가 7월 21일부터 인도 뉴델리에서 열리는 일정상의 촉박함을 생각할 때 그리고 정부와 국민의힘이 손을 놓고 있는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민주당과 야당이라도 나서서 국제사회에 대한 적극적인 메시지 전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김원모 수석전문위원께 한 가지 좀 여쭙겠습니다.

21대 국회에서도 이에 대한 결의안이 채택이 되었는데 그때 우리 국회와 정부 차원에서

어떤 조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수석전문위원 김원모 본회의 의결되고 나서 그 결의안을 일본 외무성과 유네스코 본부에 전달했습니다.

○박수현 위원 그렇습니다. 본회의가 언제 열려서 이 문제위를 통과한 동 결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정의 시급함과 이번 등재 심의가 사실상 마지막 심의라고 하는 절박함을 생각할 때 저는 만약 계속해서 국민의 힘과 정부가 국회 보이콧을 지속한다면 우리 야당이라도 나서서 유네스코에 우리의 뜻을 전달하는 서한을 보내고 일본 관계 부처를 방문해서 역사를 부정하는 일본에 대해 단호한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이런 제안을 하면서 동시에 문체부가 외교부 등 관계 정부부처에 이 조치를 하기 위한 어떠한 활동들을 했는지, 어떠한 조치를 하고 있는지 이에 대한 자료 일체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과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이러한 저의 의견에 대해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재수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의 의사진행……

○임오경 위원 한 말씀……

○위원장 전재수 예.

○임오경 위원 존경하는 박수현 위원님께서 자료제출 요구를 하셨는데 이 사도 광산 관련돼서 문체부의 절차, 과정에 있어서 우리 문체위 위원님들 전체에 좀 배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청드립니다.

o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임오경 위원 외 1인 서면동의)

(10시49분)

○위원장 전재수 더 이상의 의사진행발언이 없으시기 때문에 임오경 간사님께서 문체부 및 국가유산청 등에 대한 업무보고 요구의 건 그리고 서류제출 요구의 건, 문체부 및 국가유산청 등에 대한 현안질의 관련 중인 출석요구의 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심사할 것을 요구하는 동의를 서면으로 제출하셨습니다.

국회법 제71조 규정에 따르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동의자 외 1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서면동의서에 박수현 위원의 찬성이 있었기 때문에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71조 및 제77조 의사일정 변경 규정에 따라서 업무보고 요구의 건, 서류제출 요구의 건과 문체부 및 국가유산청 등에 대한 현안질의 관련 중인 출석요구의 건을 오늘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각각 추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업무보고 요구의 건

(10시50분)

○위원장 전재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업무보고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대상은 문체부와 국가유산청 등 18개 기관이며 업무보고 일시는 2024년 7월 8일 월요일 오전 10시로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업무보고 시 해당기관에 대한 현안질의도 함께 실시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128조제1항에 따라 의사일정 제2항 업무보고 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류제출 요구의 건

(10시51분)

○위원장 전재수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7월 8일로 예정된 업무보고 및 현안질의와 관련하여 국회법 제128조제1항에 따라서 서류제출을 문체부 및 국가유산청 등에 요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상기관은 해당 자료들을 7월 1일 월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에 오늘 회의 중에 위원님들께서 구두로 요청하신 자료를 추가해서 의사일정 제3항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증인 출석요구의 건

(10시52분)

○위원장 전재수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증인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2024년 7월 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실시 예정인 업무보고 및 현안질의와 관련하여 국회법 제129조제1항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증인 출석을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증인은 유인촌 문체부장관, 전병국 문체부1차관, 장미란 문체부2차관 및 국가유산청 최용천 청장, 국가유산청 이경훈 차장, 기타 산하기관장 등 총 26인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7월 8일로 예정된 업무보고 및 현안질의에 위 증인들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증인 명단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석전문위원과 보좌진 등 국회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산회)

증인 명단

증인(26인)

성명	직위	신문요지	출석요구 일시 및 장소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업무 전반의 추진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한 질의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업무 전반의 추진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한 질의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업무 전반의 추진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한 질의	
최보근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조정실장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업무 전반의 추진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한 질의	
김누리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보좌진 업무보고 및 문화체육관광부 불성실 자료제출의 건	
여동빈	문화체육관광부 소통정책과장직무대리	불성실 자료제출 - 가짜뉴스 신속 대응 자문단 관련 불성실 자료제출	
김혜수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장	문체부 소관 업무의 추진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한 질의(윤석열차 블랙리스트 관련)	2024. 7. 8.(월) 10:00 국회 문화체육관광 위원회 전체회의실
윤태욱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장	문체부 소관 업무의 추진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한 질의(언론인 해외연수사업 관련)	
최용천	국가유산청장	국가유산청 소관 업무 전반 추진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한 질의	
이경훈	국가유산청 차장	국가유산청 소관 업무 전반 추진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한 질의	
이은우	한국정책방송원장	한국정책방송원 소관 업무 추진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한 질의	
이해영	세종학당재단 이사장	세종학당재단 소관 업무 추진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한 질의	
정병국	한국문화예술위원장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 추진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한 질의	
박은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장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소관 업무 전반 추진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한 질의	
조현래	한국콘텐츠진흥원장	한국콘텐츠진흥원 소관 업무 추진	

성명	직위	신문요지	출석요구 일시 및 장소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한 질의	
한상준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	영화진흥위원회 소관 업무 추진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한 질의	
김병재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장	영상물등급위원회 소관 업무 추진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한 질의	
김효재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	한국언론진흥재단 소관 업무 추진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한 질의	
김태정	국제방송교류재단 사장	국제방송교류재단 소관 업무 추진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한 질의	
김준희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원장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소관 업무 전반 추진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한 질의	
이정근	한국문학번역원장 직무대행	한국문학번역원 소관 업무 전반 추진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한 질의	
서영충	한국관광공사 사장 직무대행	한국관광공사 소관 업무 전반 추진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한 질의	
조현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소관 업무 추진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한 질의	
이기홍	대한체육회장	대한체육회 소관 업무 추진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한 질의	
정진완	대한장애인체육회장	대한장애인체육회 소관 업무 추진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한 질의	
이석형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	언론중재위원회 소관 업무 추진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한 질의	

○출석 위원(9인)

강유정 김재원 민형배 박수현 양문석 이기현 임오경 전재수 조계원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김원모

전문위원 정환철

입법심의관 김충섭

【보고사항】

○의안 회부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17. 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36)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17. 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52)

이상 2건 6월 18일 회부됨

광고산업 진흥법안

(2024. 6. 18. 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81)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18. 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86)

언론증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18. 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08)

이상 3건 6월 19일 회부됨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19. 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4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19. 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4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19. 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49)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19. 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68)

이상 4건 6월 20일 회부됨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20. 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98)

6월 21일 회부됨

○관련 의안 회부

남부권 개발 특별법안

(2024. 6. 20. 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20)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

(2024. 6. 20. 문금주 의원·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46)

이상 2건 6월 21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